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견

1. 건의요지

○ 본 건의안의 요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중에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가장 많이 심화시키고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세목교환 하자는 것으로서,

현재 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계류중에 있는바, 시급하고도 취약한 구 재정력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임.

2. 세원조정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과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함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재원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자주재원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자치구간에 적지 않은 재정불균형 상태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98년도 추경예산기준으로 인구, 가구 수, 도로연장, 공무원 수 등을 측정단위로 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보면, 자치구 평균이 65.6%이고, 100%를 초과하는 구는 강남·중구·서초 등 3개 구인 반면, 50%미만인 구는 강북·도봉 등 14개 구에 이르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동일생활권 내에서도 자치구간의 행정서비스 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고, 자치구간의 불균형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이렇게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상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자치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규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며, 특히 종합토지세의 누진과세 특성과 지역간 부동산가격의 심한 격차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치구 재정수입 = 자치구세(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 세외수입

3. 종합토지세의 자치구별 세수규모

○ '98년도 서울시 전체의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4,433억원으로, 그 중 최대구인 강남구가 820억원이고, 최소구인 도봉구가 58억원으로서, 그 편차는 14.1배인 76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 종합토지세가 많은 상위 6개 자치구(강남 820억, 서초 432억, 중구 429억, 송파 353억, 영등포 240억, 용산 145억)에서 57%인 2,530억원을 징수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구에서는 43%인 1,903억원을 징수하고 있어 몇몇 특정자치구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4. 담배소비세와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

○ 담배소비세는 과표가 지역간 동일한 소비세로서 세수의 규모도 흡연자수, 인구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자치구별 재정수요에 비례하는 균형적인 세원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이 317억원이고, 도봉이 120억원으로서 그 격차가 2.6배 정도이고,

○ 세수규모는 4,934억원으로서 종합토지세 4,433억원과 비슷한 규모임.

5. 세목교환에 따른 영향

○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50%이상이던 2개 자치구가 없어지고, 50%미만이던 14개 자치구가 3개로 되어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상태가 대폭 개선되는바,

○ 20개의 자치구가 평균 59억원(최고 : 노원 72억원, 최저 : 종로 34억원)이상의 세수증가를 가져와서 자주재정을 확충해 주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 세목교환으로 인해 일시에 총 재원이 감소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충격이 우려되고,

감소예상 자치구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차액)

강남 502억원, 서초 146억원, 중구 154억원

○ 서울시에서는 약 5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

6. 참고사항

○ 참고로 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동작 등 6개 구의회가 찬성의견을, 중구, 강동 등 2개 구의회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으며,

○서울시(집행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금라의원, 이양한의원, 홍순철의원 등 우리 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자치구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세목교환과 관련된 찬반양론의 의견이 있었음.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 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문(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는 현재의 극히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동 세제개혁을 통하여 지역화합과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98년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강남구는 820억원인데 반하여 도봉구는 58억원으로 구간 격차가 무려 14배 이상의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강남구는 350억원, 도봉구는 132억원으로 2.6배에 지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시 21개구는 세수가 증대하고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중구)만이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개발시 강북재원을 들여 도로망과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강남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정비된 반면, 도봉·성북 등 강북지역은 도로망의 정비가 불비한 점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시세와 구세가 잘못 배분된 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구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역화합과 건전한 경쟁 그리고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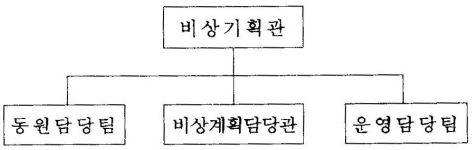
1999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非常企劃官 '99年度 業務計劃報告

一 般 現 況

□機 構



□機 能

○비상시 대비 충무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총괄·조정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주관

○군 관련 지원 협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사태시 군작전 지원 및 행정기능 유지, 시민생활 안정 도모

□人 力

구 분	계	2 급	5 급	6 급	7 급	기 능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5	1	3	4	4	3